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제주 사회 변화와 제주 방언의 변화¹⁾

강정희 · 한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생태계'의 변화와 '언어'의 변화를 전혀 관계없는 자연 과학과 인문학 연구 분야 및 대상으로 다루어왔다. 사실 이 두 현상을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틀리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태계'라고 할 때 그 중심 대상은 주로 '자연, 동물, 식물'로 한정하고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인간을 '생태계' 범주에서 제외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가 생태계의 한 범주로 인지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가 '언어 변화'와 '생태계 변화' 사이에 모종의 유사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언어와 사고, 언어와 문화, 사회'라는 일반적인 언어관에 의하여 언어가 '언어-인간-사회-자연'이

1) 이 논문은 2007.10.11-12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으로 '2007제주 민속 문화의 해'와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한 '제주어와 제주 민속의 변화 그리고 보존'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부분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제주 방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표준어로 전국 지역 방언들이 단일화 되어가는 현상, 즉 소멸되어 가는 지역 방언들의 일반적인 현실을 대상으로 다루지 못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리는 유기적 관계의 한 구성요소로서 언어의 변화 또한 생태계 변화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인간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온 산업화의 역작용인 자연 환경의 파괴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 대기오염으로 인한 오존의 감소로 말미암은 이상 기후로 인하여 지구가 파괴되어가고 있는 중심에 놓이게 된다. 특히 지구의 자연과 사회 환경 변화는 곧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나 동물, 식물들의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물, 식물의 생태계에서는 주위 외부 환경 조건 여하에 따라 사슬체계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재 진행 중인 변화와 개체 내부의 변화로 인한 멸종 및 변이형의 발생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태학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생물학, 인류학 등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특히 생태계의 변화 가운데 있는 생물들의 상호작용이나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관찰, 연구한다. 언어 변화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는 바로 이런 자연 생태학의 시각에서 출발한다.

‘언어 생태학’이란 용어는 현재 언어학계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언어 변화의 외적 요인을 연구하는 ‘사회 언어학’ 연구 방법이 바로 언어 생태계의 변화 요인,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 이 연구의 시각은 생태학의 연구 방법을 언어의 변화에 적용하여 개별 화자나 집단들의 언어생활을 결정하는 외부적인 요인, 즉 사회적인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연구한다. 즉 외부 환경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언어 생태계가 겪는 언어변화의 흥망성쇠의 여러 가지 양상, 즉 외부 언어와의 충돌, 언어의 소멸, 언어정책, 언어습득 등의 현상들을 자연계에 살고 있는 동물, 식물들의 생성, 투쟁, 소멸 과정과 동일하게 보고 설명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최근 급격하게 해체·붕괴되고 있는 제주 사회의 전통문화와 이에 따른 제주 방언의 소멸 현상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짚어 보고 앞으로 제주 방언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본 목적을 두기로 한다.

II. 언어와 문화유산

언어가 왜 문화유산인가?

문화는 의식주 등의 물질적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 집단의 우주관, 세계관, 사고방식과 같은 정신세계를 포괄한다. 언어는 이와 같은 '문화'의 두 측면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첫째는 어떤 사회가 구축한 문화는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에 언어를 잘 살펴보면 그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읽어 낼 수 있다. 둘째, 언어 속에는 언어 집단의 과거, 현재의 정신세계가 반영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정신세계의 현재형이고, 또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현재의 우리의 정신적 무형 자산인 것이다.

오래 전부터 언어학자와 철학자들은 '언어와 인간, 언어와 사고' 그리고 '인간과 사고'라는 함수 관계에 대해서 언어는 인간의 사고의 외적 표현 수단이라고도 하고 또는 '존재의 집'이라고 해 왔다. 이는 어떤 사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인간에게 만약 언어가 없었다면 존재 자체를 의식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언어=인간 존재의 집'이라는 등식에서 우리가 '집' 속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망라하는 '문화'다. 그러므로 그 민족의 언어가 잘 보존된다는 것은 해당 민족의 경험 세계와 정신세계의 전통성 및 정체성의 보존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정신세계의 표현인 언어의 보존이라는 과제는 언어의 본질을 닦아서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현재 소멸의 과정을 밟고 있는 방언 현상들에 민감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언어가 무형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중의 하나로서 '문자'로 기록하는 '기록 문화'의 확충과 언어와 행위가 함께 하는 전통문화-행위 문화들의 원형을 살려서 보존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그 성공적인 예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호남 지방의 무형 문화재인 '판소리'와 강릉 지방의 '단오제'다. 이들이 '자연(유산)'과 다른 점은 그 대상이 '소리, 구술' 그리고 '행위'로 이루어져 있는 '문화(유산)'가 잘 보존·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지역의 전통문화는 서민층들의 삶의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무형적인 자산이다. 전통문화 중에서도 구전으로 전승되는 구비 문화들-신앙 의식(굿), 제례 의식, 무가, 민요, 설화, 속담 등-에서는 지역 방언을 기본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형의 자산이 대물림이 잘되어 보전되는 것이야말로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히 그 존재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판소리와 강릉 단오제 속에는 호남과 강릉 지역 사람들의 과거, 현재의 세계관, 가치관, 정체성과 같은 정신세계를 알 수 있는 지역 방언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그리고 올해 2007년 제주도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을 받았다. 제주도가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자연 환경'이 잘 보존·유지되었다는 것으로 안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유지되었다는 것은 곧 이 속에 살고 있는 '생태계'가 잘 보존되었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렇다면 제주 사람들의 언어 생태계의 보존 상태는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까지 안타깝게도 낙관적이지가 못하다. 왜냐하면 제주 사람들의 정신과 세계관을 담고 있는 언어문화, 즉 방언은 문화유산으로 호남의 판소리나 강릉 단오제와 어깨를 같이할 만한 '기록'이 되거나 행위로 전승되고 있는 민속 문화 형태를 제시할 수도 없고, 설혹 있다 하더라도 원형 보존도 그리 잘 되어 오지 못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주에는 다른 지방이 갖지 못하고 있는 제주 특유의 전통 민속 문화로서 '영등굿'이라든가 '노동요'로서 '해녀가' 등이 있다. 이 문화재들도 판소리와 강릉 단오제처럼 제주 지역 '방언'을 바탕으로 하는 '소리'와 '행위'의 문화다. 그러나 이 문화재들은 제주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거나 변질되어 가고 있다. 영등굿은 마을마다 그 규모가 작아지거나 문화제 등의 행사에서 공연하기 위한 공연성이 많아지는 변이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해녀 노래는 해녀 수의 감소로 인해서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점이 요즈음 우리 제주 방언 무형 문화의 현실이다.

Ⅲ. 환경 변화와 언어 변화

인간의 역사가 '홍망성쇠'의 반복이라고 할 때 언어 또한 '홍망성쇠'의 역사를 지닌다. 언어를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역사 언어학이나 생태 언어학이 사용하는 언어의 소멸, 생존과 같은 용어들이 이를 반영한다.

생태계에서 서로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기도 하고 생존경쟁을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서로의 존재가 의존적인 것과 같이 언어들 사이에도 서로 균형이 유지되거나 또는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서 외부 세계로부터의 강력한 존재의 공격에 의한 변화다. 이 변화는 개체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충돌 현상의 결과로 일어난다.

말하자면 토종과 비토종과의 힘겨루기에서 토종이 밀리는 현상이 대표적인데, 예를 들면 황소개구리의 등장으로 토종 개구리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청솔매가 토종 다람쥐를 내쫓는 생태계의 변화 현상과 같은 것이다.

언어도 이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제2의 우세어가 들어오면 토착 화자들은 이 언어에 대해서 저항과 타협, 그리고 항복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 결과 관찰되는 것이 언어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유형의 언어 변화의 모습이다.

언어의 보존을 토착 화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우세어에 저항해서 이겨낸 결과라면 언어의 소멸은 주로 타협과 항복이라는 약세적인 태도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이 언어 소멸은 1. 외세의 무력 침략, 2. 민족의 멸망, 3. 강한 문화로의 동화라는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한다. 이러한 언어 생태계 내의 갈등 양상은 결국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생존 경쟁의 원리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다음에 위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한 언어의 소멸 양상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외세의 무력 침략에 의한 언어 소멸

외세의 무력적 침략에 의한 언어 소멸은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사례는 가까이는 우리 현대사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지배자였던 일본인들의 우리 한국어에 대한 억압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통치를 위한 국가주의적 언어 정책은 정치적이며 이념적인 것이다. 이러한 요인에 의하여 피지배자 집단의 언어가 소멸되는 현상은 인위적인 현상으로 간주된다.

2. 민족의 멸망에 의한 언어 소멸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몇 개나 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정설은 없다. 언어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3천 종이라는 설에서부터 5천 종, 심지어는 1만 종이라는 설까지 있다. 왜냐하면 언어의 숫자는 동물과 식물의 숫자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고 된 언어 통계학에 따르면[박육현, 1999:42(역)에서 재인용, Decy(Spiller에서 인용, 1991:20] “1970년과 1985년 사이 언어의 수는 약 4500에서 2800으로 줄었다 그리고 언어의 소멸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도 일어났다. 예를 들어 지난 2세기 동안 달마티아어와 영국의 두 켈트어가(Grafschaft Cornwall의 Cornish와 Man 섬의 Manx) 없어졌다. Cornish를 사용했던 마지막 여자가 1777년에 죽었다.

1901년도 Manx를 사용한 화자는 5만 명 섬 주민들 중에서 4650명으로 줄었다. 1931년에는 Manx만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529명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1950년에 10명이 생존했으며 다시 이들 가운데에서 마지막 화자인 Maddell은 1974년 97세의 나이로 죽었다.” 결국 이 화자가 죽음으로써 Manx어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동양에서는 만주족의 멸망으로 인한 만주어의 소멸이 대표적이다²⁾.

3. 강한 문화로의 동화로 인한 언어 소멸

언어 변화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 해에 걸친 문화의 접촉과 간섭에 따라서 언어와 문화에 일어난 영향과 수용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사용자들 간에 작용하는 사회적 힘 또한 작용한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소유보다 더 나은 것을 취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망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상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낳게 하고 또 그 대상을 모방하는 모방 심리를 자극하게 된다. 신분 상승의 심리적 구조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문화를 쉽게 수용하게 한다. 이러한 인간들의 본능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제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모방 심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모방에 의한 언어 습득 과정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겠지만, 위로 향한 변화는 의식적인 변화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변화는 한 국가 안에서 표준어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 외 사회 언어학에서는 언어 변화의 요인을 결속력으로 설명한다. James Lesly Milroy(Milroy, 1992)는 언어 사회의 구성원 간의 강한 결속감은 언어 변화의 속도를 더디게 하지만 약한 결속력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결속력(network)'이란 바로 그 모집단에 대한 구성원들의 '정체성(identity)'을 의미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집단적 정체성이야말로 외부로부터 오는 무력적 침략과 우세 문화로의 동화 심리에 작용하는 우세어의 간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결정하는 언어 변화의 내부 요인이다. 이 결속력의 강도에 따라 언어 변화의 정도와 속도가 좌우된다고 하겠다.

-
- 2) 필자가 1970년대 중반 박사 학위 과정에서 만주어를 가르치시던 서울대 언어학과 성백인 교수가 만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타이완으로 조사·채록하시러 가던 일이 생각난다. 그 당시 이 제보자는 매우 고령자로서 이 화자가 죽으면 실제로 만주어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IV. 제주 사회 변화와 제주 방언의 변화

2000년대의 제주 방언은 다른 지역 방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민들의 기층문화가 급격하게 소멸해 감에 따라서 이에 사용하던 토착 방언형들이 우리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변화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본 장에서는 제주 방언의 소멸 위기를 앞 장에서 제시한 언어 소멸의 원인에 의거하여 1. 생활환경 파괴, 2. 인구 감소, 3. 우세 문화로의 동화욕구의 심리적인 면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생활환경 파괴에 의한 방언 소멸

제주 방언 화자들이 '제주 토착 방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다. 제주 방언의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현상은 아니다. 길게는 국어사 속에서, 짧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제주도가 겪었던 커다란 정치·사회적인 격동기를 거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알다시피 제주도는 1948년 4·3 사건과 1950년~1953년에 겪은 한국 전쟁과 1960년~1970년대 이 지역의 토지 개발의 붐을 타고 강한 문화인 육지 문화에 휩쓸리게 된다.

1948년 4·3 사건과 1950년에 일어난 한국 전쟁은 외부와의 접촉이 없던 제주 사람들에게 외부인들과의 왕성한 교류를 하게 만든 전환점의 시기였다. 이 기간 육지에서 제주도로 밀려온 수많은 피난민들과 함께 들어온 여러 지역 문화들이 제주의 전통문화와 섞여서 공존하게 된다. 문화뿐만 아니라 제주 방언도 육지 사람들의 언어에 노출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제주 사회의 주체 세력은 제주 방언 화자들이었으므로 육지인들이 언어에 비해서 제주 방언이 우세어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제주 문화와 육지 문화와의 접촉은 제주 방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다. 이 시기에 외부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제주 방언이 서서히

변화를 경험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제주 방언이 본격적으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시기는 1960~1970 년대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는 정부의 새마을 운동과 식생활 개선, 미신타파 운동, 표준어 교육 실시 등의 통치의 편익을 위한 정치적인 정책이 제주 전통 사회와 민속 문화의 변화를 한층 가속화시킨 시기였다. 그 결과 우리는 의식주 생활에서의 놀라운 편리성이라는 득을 얻었으나 전통 문화와 방언 문화의 해체라는 엄청난 대가를 감당하기 시작해야만 했다. 즉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인위적인 의식주생활 환경 변화의 가속화는 이어서 전통 의식주 문화의 해체 속도를 그만큼 빠르게 견인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이 의식주 관련 토착 방언형의 소멸 속도도 빨라지게 되었다. 마치 생태계 변화의 사슬 구조와 같은 변화의 연쇄 현상이 제주 방언 안에서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지붕 개량 운동으로 초가집이 없어지고 개량 지붕과 개량 집이 생기고 아파트까지 주거 형태가 바뀌게 된다. 제주도 주거 문화의 변화는 토종 초가집을 밀어내고 신종 개량 주택이 들어서고 집 안에서 사용하던 토착 방언들마저 밀어내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정지, 굴묵, 상방, 살래, 무똥, 고팡, 통시’ 등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전통 초가집에서나 그 명맥을 유지하는 소멸 과정에 놓인 방언 어휘들이다.

식생활도 마찬가지다. 식생활 개선 운동에 따라서 ‘상왜떡’은 ‘빵’에 밀려 버리고 ‘모밀초배기’는 ‘수제비’라는 표준어에 밀리고, ‘오메기, 돌레떡’ 등은 천박하고 맛이 없는 떡으로 상에서 없어진 지 오래다. 의생활에서도 한때 ‘갈옷’이 사라지면서 울담 안에 있는 토종 ‘땡감’으로 몰들이는 제주만의 전통 염색 문화가 사라지기도 했다.

2. 인구 감소로 인한 제주 방언의 소멸

Ⅲ장 2에서 해당 언어 사용자들의 감소함에 따라서 그 언어의 생명도 앞당겨지는 언어적 사실을 살펴보았다.

제주도 인구는 출생률의 저하와 청소년 집단과 젊은 집단의 육지로의 유

학 및 취업으로 인한 이주로 인하여 최근 10년 동안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현재의 제주도 인구는 100여 만 정도다. 그러나 이 속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비토착 방언 화자, 즉 이중 방언 화자와 표준어 화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제주도의 100만 인구가 모두 토착 방언 화자라고 한다면 방언 소멸의 속도와 위기는 훨씬 늦어질 것이다. 그러나 토착 방언을 구사하는 노년층이나 전통 문화와 구비 전승 문화 등의 기층문화를 구성하는 인구수는 우리가 기대하는 수보다 많지 않다는 데에 제주 토착 방언 화자들의 감소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는 말이다. 앞 장에서 우리는 제주 전통문화의 소멸에 따른 방언의 소멸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다. 전통문화의 소멸은 곧 이들 기능 보유자들인 방언 화자들의 감소와 무관하지가 않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주 방언에서 ‘신바치’와 ‘갓바치’, ‘심방’, ‘좁녀’, ‘테우리’ 등 제주의 기층문화를 이루는 각 분야의 전문 인구의 감소는 이 분야의 토착 방언의 감소를 의미하고 토착 방언을 구사하는 노년층의 감소는 생활어의 방언의 소멸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환경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방언 소멸의 현실은 바로 자연 생태계에서 개체 수의 감소와 멸종에 따른 개체 집단의 특성의 소멸에 대응되는 언어 생태계의 모습이다.

3. 우세 문화로의 동화 욕구에 의한 방언 소멸

방언 변화를 유도하는 심리, 문화적 요인으로서 약한 ‘정체성, 결속력’과 상대적 우위 문화로의 ‘상승욕구, 모방심리’ 등의 복합적인 심리 작용을 들 수 있다.

1에서 다룬 1960-70 년대의 제주 방언의 변화를 가속화 시킨 숨겨진 요인은 외부 문화의 유입에 따른 당시의 제주 방언 화자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제주도라는 모집단과 제주 방언에 대한 ‘열등의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열등의식’은 최근 제주도가 국내외적으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정받는 시기의 세대들에게서는 발견

되지 않는 50대 이상의 세대들의 ‘집단 무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세대들은 제주도가 살기 편해지기 전 그들의 고향이 자연환경이 척박한 유배지라는 역사성 때문이었는지 육지 사람들에게 묘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육지 사람들도 이 시기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 출신자들을 멸시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육지에 간 제주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주저했다. 육지말로의 언어 전환 속도도 타 지역 출신자들에게 비해서 매우 빨랐다. 그 이유는 육지 말과 방언 차가 큼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외형적인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그 외에 고향에 대한 열등의식에서 자신의 출신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식이 작용했던 것이다. 즉 이 시기의 이 세대들의 ‘열등의식’은 불리한 조건으로 인한 자신의 출신에 대한 ‘정체성’의 약화로써 이 시기의 급격한 방언 변화에 한몫을 했다고 본다.

또한 방언학에서는 한 개별 언어 안에서 방언 차가 클수록 대내외적인 조건에 의한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최근 제주 방언의 변화 속도를 관찰해 볼 때 이 주장은 매우 무기력해짐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제주 방언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담으로서 대중 매체-TV와 인터넷-의 막강한 힘과 표준어 교육 정책으로 인한 단일 모국어화 언어 정책, 이에 대응한 제주 사람들의 ‘우세한 문화로의 동화’ 심리를 들 수가 있다.

현대 우리 사회는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서울 문화로의 ‘단일화’로 향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단일화’의 가장 핵심 요소로서 ‘TV’와 ‘인터넷’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 ‘TV’는 지역 방언들을 표준어로 단일화하는데에 큰 몫을 담당한다. 대중 매체에서 학습되는 문화들은 ‘상향 지향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앞의 Ⅲ장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지역 사람들은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층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의 문화를 동경하거나 모방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현상은 제일 첫 단계로서 언어의 모방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서울 말씨는 ‘이름답고, 신분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학습하게 되고

방언은 '투박하고, 유치하고, 촌스럽다'는 인식에서 방언 사용을 거부하게 된다. 이러한 우세어 사용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권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물론 표준어 중심의 교육을 하는 데에서 더욱 굳어지게 되면서 자신들의 모집단에 대한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의 제주민의 정체성을 조사한 김항원(1998:227)의 보고에 의하면 외부 문화에 대한 제주 문화, 가치관에 대한 조사 결과는 1960~70년대의 기존 세대들이 가졌던 제주도 출신이라는 '열등의식'은 없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³⁾. 그러면 제주도라는 모집단에 대한 '결속력-정체성'의 문제는 과연 어떠한가?

다중 언어 사회에서 소수 언어 화자가 가지는 '결속력'은 양면성을 지닌다. 그것은 자신의 모집단으로부터의 이탈하여 목표 집단으로의 '결속력'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모집단에서 볼 때는 약한 '결속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중 언어 사회에서 소수 언어 사용자인 이중 언어 사용자가 가지는 '정체성'의 혼란 현상은 흔한 일이다. 이와 동일하게 표준어와 방언은 '이중 체계'로서 서로 경쟁한다. 그러므로 방언 화자의 '정체성' 정도에 따라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밀리느냐가 결정된다.

다행히 최근의 제주도를 모집단으로 방언 화자들에게서는 제주 방언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보고되고 있다(김항원, 1999:251~64). 그러나 이 조사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세대가 젊어 질수록 그 성향이 매우 감소하고 있음도 보여 준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방언 화자들의 감소를 예상하게 하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이 약할수록 외부로부터의 간섭으로 인한 언어 변화-소멸은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3) 김항원(1998:227)은 제주도 주민들의 열등의식에 관한 조사로 "나는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에 비해서 못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설문 조사 결과 83.6%의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V. 자연보호가 필요한 제주 방언-제언

국제화 시대에 세계 언어에도 생존 경쟁의 원리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초강대국의 언어인 영어가 세계 언어를 지배하고 잠식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21세기는 약소국가나 소수 민족 언어는 자연 도태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시기다. 이러한 시대에 “특정한 자연 언어를 소멸시키는 것은 언어-세계-정보 유형-경험 체계를 없애는 것이며, 생태 언어학적 언어 보호의 과제인 언어-세계-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은 동시에 다양한 경험 체계를 보호하는(Trampe, 1990:209-박육현, 1999:41 재인용)” 의미를 가진다.

2000년대의 제주 방언의 소멸 위기와 보호 과제는 Trampe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국어사적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 방언의 소멸은 곧 과거 한국인의 경험세계의 소멸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방언의 보호는 곧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생태계의 생물체들에 대한 보호 운동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 방언 지킴이’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주 방언 보존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1. 토착 방언 화자 발굴 및 보호 및 육성 정책 실시

제주도에 거주하는 노년층의 토착 방언 화자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언 채록 및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이 시급하다.

건강한 화자라면 방언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들을 초·중등학교에서의 방언 교육의 ‘방언 교사’로서 활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들을 통해서 젊은 층들에게 방언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토착 방언 화자들을 육성하도록 한다.

이 방안은 호남의 ‘관소리’가 잘 보존된 이유 중의 하나로 관소리 전수자들을 ‘관소리 전수관’이라는 교육 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육성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서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에서는 ‘제주 방언 학교, 또는 제주 방언 전수관’이라는 교육 기관을 각 지역에 설치하여 방언 화자들의 인구 저변 확대를 기해야 한다. 제주 방언 전수관에서는 제주 조상들이 사용하던 생활어, 민담, 설화, 속담, 민요, 노동요 등의 제주 방언 문화 전반에 걸친 구연자들을 육성하는 교육 내용으로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2 방언 교육의 강화

표준어와 방언은 서로 이중 체계로서 존재한다. 제주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는 표준어 중심의 단일 언어 교육에서 벗어나 표준어와 방언을 모국어로서 다 구사할 수 있는 이중 방언 교육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방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크게 (1) 교육 행정과 (2) 교육 현장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 하는 관계에서 실시해야 한다.

(1) 교육 행정

제일 먼저 초·중등학교에서의 방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 정책이 시급하다. 이 방안의 하나로서 앞에서 제시한 노년층의 방언 화자를 1일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세대차로 인한 의사소통상의 문제, 교육의 전문성의 부족 등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해결과 노년층 자원 봉사 방언 교사들이 돌아가신 후 그 기능을 이어받을 국어과 교사들에게 방언 교육 연수 과정을 실시하는 방법과 임용할 때 영어과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제주 방언 구사 능력을 반영하여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적용해 볼 만하다.

(2) 교육 현장⁴⁾

4)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영봉(2007)에서 교육 과정 등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 시간 외에 음악 시간을 방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국어과의 방언 교육은 7차 교육 과정에서 각 지역과 언어에 대한 단원이 있으므로 이 단원을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까지 수준별, 단계별로 교재를 개발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제주도 전 지역이 공통 교재와 교안을 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방언 교재에는 제주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역할극하기, 연극, 영화의 한 장면을 제주 방언으로 바꿔 보기, 제주 방언 자료 채록하기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아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가지게 해야 한다.

음악과는 사라진 제주 전래 동요, 민요들을 발굴해서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 방언으로 창작 동요도 만들어서 교육한다면 노래로 배운 제주 방언이 국어과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될 것이다.

3. 방언 문화 활성화

방언 문화란 방언으로 이루어진 모든 문화를 망라한다. 전통 구비 전승 문화 외에 방언으로 쓴 문학 작품들도 물론 해당된다.

제주 전통 민속놀이를 찾아내어 민속 문화를 생활화하는 방법으로서 각 마을마다 미신 타파의 대상으로 소멸되고 위축된 전승 문화의 형태를 복원하여 마을 단위로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토착 방언으로 구연되는 민속 문화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진다. 즉 문화제 행사 기간이라는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접해 볼 기회가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제주도에 있는 성읍 민속 마을을 '제주 방언 체험 마을'로 강화하도록 한다.

제주도가 지정한 현재 성읍 민속마을에는 이렇다 할 민속 문화 프로그램이 없다. 이 민속 마을에는 단지 관광객들에게 마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토속 음식을 사 먹게 하는 '상업성'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이 민속 마을은 제주도의 옛날 마을 모습은 보여 주고 있으나 그 마을 안에서 제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상은 방문객들은 체험할 수 없다. 따라서 제

주도는 이와 같은 소극적인 방언 생활 문화 현장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살아 있는 체험 현장으로 한 단계 높여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전남의 낙안읍성이나 용인 민속촌이 본보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언제든 이 마을에 들어가면 제주 방언으로 의사소통은 물론 모든 민속 문화 공연을 보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현재 있는 성읍 민속 마을을 제주 방언 문화 보존의 장으로서 민속 문화 공연과 방언 문화 및 방언 교육의 체험 학습장으로서 활용할 때 방언 문화의 보존이 좀 더 확고하게 될 것이다.

그 외 제주 방언으로 쓰는 '제주 문학'의 활성화다. 현재 제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 작품 활동의 수준이나 규모는 '향토 문학'에 머무르고 있음이 사실이다. 제주 방언으로 쓰인 문학 작품이야말로 제주 방언을 읽을 수 있는 현대판 '기록 문화'의 기초가 되므로 작가들의 작품 안에 제주 방언을 살려 쓰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소설-에서 제주 방언으로 대사를 썼을 때보다 오히려 제주 방언으로 쓸 때 극적 효과를 높이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 방언 문학이 '향토문학'의 단계에서 '한국 문학'화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을 때 제주 방언이 '기록'으로서 보존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4. 지역 대중 매체들의 방언에 관한 관심

제주 방언 보존에 있어서 대중 매체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중에서도 TV의 힘은 다른 대중 매체의 최우선에 선다. 그러므로 지역의 TV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제주 문화와 제주 방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역 대중 매체는 제주 방언에 대한 자긍심, 정체성 확립에 대한 논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말을 과잉 사용하는 일에 대한 재조명, 제주 방언의 관광 상품화에 대한 여론 및 방법 조사 등의 방언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 방언 알기, 그리고 방언 화자들의 발굴 및 소개 등과 1)~3)에 제안한 방안들의 내용을 제주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 지역의 대중 매체가 제주 방언 보존에 한

뫼을 하게 되는 것이다.

5. 방언 연구와 연구자를 위한 지원 정책 실시

현재 각 지역 방언 연구자의 감소 현상은 특정 지역만의 현실이 아닐 정도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이 현상은 현재 각 지역의 방언이 소멸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연구 대상으로서의 매력 또한 상실해 가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하겠다.

방언 보존 방법은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첫째는 소멸 위기에 있는 방언들을 현장에서 채록·보관하는 일이다. 이 일은 환경론자들의 현장에 나가서 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장에 나가서 각 지역마다 소멸 위기에 있는 방언들을 채록하고 CD, DVD화하거나 DB 구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일은 곧 제주 방언 문화를 보호하는 제1단계다.

둘째 방향은 조사된 자료를 설명하는 연구다. 그 지역의 방언사와 방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언 생태계의 모습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에 종사하는 제주 방언 연구자의 수는 전국 지역 방언 연구자 수에 비해서 매우 영세하다. 그 이유는 제주 방언의 큰 방언 차로 인해서 다른 지역 출신 국어학자들이 제주 방언을 이해하거나 구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제주 방언 연구는 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제주 토박이 화자나 대학 교수, 그리고 제주 출신 국어학자와 민속 및 구비 문화 연구자들을 합해서 10여 명 남짓하다.

그러므로 제주 민속 및 구비 문화 자료와 방언 자료를 채록하고 보존·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 수립 및 수행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각 지역 또는 제주도에 있는 대학의 ‘국어국문학과’를 대학이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특성화’시켜서 젊은 연구자들을 육성하고 이들의 연구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는 정책 수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소멸된 소수 민족의 언어가 채록된 문

자를 해독하는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 방언의 경우도 구술 자료 채록 및 정리와 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좀 더 완전한 방언 보존이 가능하리라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기관에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해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제주 방언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음을 알고 있다. 정부 부속기관들이 특정 지역 방언 보존에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에서 방언 전공자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특정 지역 방언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방언 보존 정책 수립 및 수행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는 방언 전문가와 제보자 집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작업이다. 각 지역 방언을 재생시키고 활성화 하기위해서 초등학교 국어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해당 지역 방언 교육을 확대화해야 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널리 쓰이고 있는 지역 방언들을 복수 표준어화 하는 작업도 정부 기관에서 서둘러야 할 일이다. 방언 자료를 수집해서 기록, 보존하는 일과 방언을 살려 쓰게 하는 언어정책 수행이 함께 해야 방언이 희생할 수 있고 장수할 수 있을 것이고 믿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강영봉(2007), 「방언의 국어교육적 의의」, 『영주어문』 14집, 영주어문학회.
강정희(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역락.
김광해 외(1999), 『국어 지식 탐구』, 박이정.
김항원(1999),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출판부.
박육현(1999, 역), 『생태 언어학』, 한국문화사.
박의재, 정미정(1999, 역), 『현대 사회언어학』, 한신문화사.
제주특별자치도, 국립민속박물관(2007), 『제주어와 제주민속의 변화 그리고 보존』, 누리.